'안데스의 상징 콘도르(독수리)의 모티브 와인'

트라피체 말벡

Trapiche Malbec

지역	아르헨티나 〉 멘도자		
포도품종	말벡 100%		
알코올	12.5%	용량	750, 375ml
시음 적정 온도	13-15℃		
테이스팅 노트	후추향과 함께 잘 익은 과일향의 아로마가 후각을 자극하며, 입안에서 다시 느껴지는 풍부한 과실향이 인상적이다.		

당도 DRY 1 2 3 4 5 SWEET

바디 LIGHT 1 2 3 4 5 FULL

제품설명

트라피체 버라이탈 와인은 멘도자 동부지역의 고산지대에 위치한 산타 로사 지역의 재배지에서 생산된 와인으로 영국, 이탈리아, 페루, 아르헨티나의 와인 어워드등에서 여러 차례 수상을 하며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와인 시리즈이다. 아르헨티나의 국기의 색깔을 차용한 푸른 빛 레이블과 아르헨티나의 뛰어난 자연환경의 상징하는 안데스 산맥, 그리고 품질에 대한 높은 이상을 보여주는 콘도르(안데스 산맥에 서식하는 독수리의 일종)를 모티브로 완성된 레이블이 아름답다.

수상내역

2006빈티지 와인 엔수지애스트 Wine Enthusiast 83점
2006빈티지 와인 스펙테이터 Wine Spectator 83점
2003빈티지 와인 엔수지애스트 Wine Enthusiast 86점

와이너리

안데스 산기슭의 멘도자에 위치한 트라피체는 1883년에 설립된 이후 내수/수출 물량 1위로써 명실공히 아르헨티나 대표 와이너리로 인정받았다.
120여 년의 긴 역사 속에서도 개척정신과 혁신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온 트라피체는 세계적인 와인 컨설턴트인 미셸 롤랑과 합작으로 '이스까이'란 제품을 만들어 내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아르헨티나 와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또한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와인 품평회인 IWSC에서 올해의 아르헨티나 와이너리(Argentina Wine Producer of the Year) 트로피를 4회 수상하였으며 (2004, 2006, 2011, 2012), 2007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나 임팩트 매거진의 "Hot Brand"를 수상하면서 품질과 대중성 모든 부분에서 그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말벡' 열풍의 선도자로서, Wine Spectator Top 100, Wine Enthusiast Top 100에 선정된 '트라피체 싱글빈야드 말벡'부터 1년 동안 전 세계 250만 병이 팔린 '오크캐스크 말벡'과 같은 대중적 와인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아르헨티나 와인'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